

(민=더불어민주당, 국=국민의힘, 녹=녹색정의당, 진=진보당... 사진은 현역의원·기호순)

### '호남정치 1번지' 이슈 선점 주목...민주, 치열한 경선

#### 광주 동남을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광주 동남을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본선 준비를 마친 국민의힘과 진보당 후보들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이병훈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안도걸 예비후보 간 2인 경선이 치러진다. 여기에 박은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진보당에서는 김미화 전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이 가세해 치열한 본선을 예고하고 있다.

동남을은 광주 원도심이 많이 포함된 지역구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그동안 노인 복지 등에 가장 관심을 쏟는 지역이기도 했지만 최근

#### 현역 이병훈 vs 신인 안도걸...국힘 박은식·진보당 김미화

구도심 재개발 등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연령대 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선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권권의 분석이다.

민주당에서는 시장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병훈 국회의원이 재선에 도전한다. 이 의원은 24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이다. 19·20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21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중앙과 지방정부에서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이 강점이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지역 현

안을 풀어내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서는 당원 중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를 만들고 당원 조직 강화에 힘쓰는 등 시장 위원장으로서 책무에도 힘썼다.

이 의원과 맞붙는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광주 동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3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복지, 경제 예산을 거쳐 예산총괄심의관을 지낸 뒤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했다. 특히 호남 출신으로 16년 만에 예산실장이라는 점에서 '예산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에 입당한 뒤 경제연구소를 차리고 지역 경제 문제에 대한 여러 정책과 대안을



이병훈(민)



안도걸(민)



박은식(국)



김미화(진)

내놓고 있다. 경제 전문가답게 정부의 경제 지표를 분석한 결과 등을 활용한 대비책을 제안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이 단수 공천을 받으며 총선 판세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광주 출신인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이어졌던 정윤성 공원 조성 사업을 막았다며 사업 지역구인 광주 동남을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무등산 케이블카 조

성, 스크린 경마장 이전, 총장주 주차타워 설치 등을 지역 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진보당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 출신 김미화 진보당 광주시당 동남을 지역위원장이 일찍이 후보자로 확정되면서 출마 준비를 마쳤다. 동남을은 동구 일원과 남구 양림동, 사직동, 방림 1·2동, 백운1·2동이 지역구에 포함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도농 복합지역 공약 경쟁...3당, 인물 경쟁력 부각

#### 광주 광산갑

도농(都農) 복합지역인 광주 광산갑은 도심·농촌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한 지역인 만큼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표심을 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사와 변호사 출신의 후보가 경쟁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중앙당과 소통을 강점으로 내세운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으며 진보당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후보가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광주 광산갑 이용빈 국회의원과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가 경선에서 맞붙게 됐다.

이 의원은 2016년 민주당 '호남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된 인사로 20대 총선 당시 낙선하고 21대 총선에서 국회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초선임에도 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재명

#### 민주, 이용빈·박균택 대결...국힘 김정현·진보 정희성 본선 대비

당대표 체제에서는 정책위 상임부위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당내 튼튼한 기반을 다져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하며 활동하면서 광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를 확보했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려인 등에 재외 동포 자격을 부여한 재외동포 포용법 제정 등에 힘을 보태며 지역 속인 사업과 현안을 위해 힘써왔다. 이 의원에 맞서는 박균택 특보는 '광산 토박이'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대검찰청 형사부

장, 법무부 검찰국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검찰 개혁 실무를 책임지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으며, 검찰 내에서 동료와 선후배 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이재명의 방패'로 주목받았다. 박 특보는 고향인 광산구에 '법무법인 광산'을 설립하고 지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찌감치 표발을 닦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김정현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단수 공천을 받으며 출마 준비를 마쳤다. 국민의힘 광주·전남 사·도당이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 최소 1석 이상을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만큼 국민의힘



이용빈(민)



박균택(민)



김정현(국)



정희성(진)

후보들의 약진도 관심사다.

김 전 위원장은 시장 위원장 시절 중앙당을 오가며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유치, 송정역 광장 조성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국비 예산 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의힘 호감도와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후보 간 경선 과정에서 고소·고발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나홀로 선거'를 하며 비박 민심을 다져왔다.

진보당에서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정희성

진보당 공동대표가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다. 정 공동대표는 군공항 소송 피해 보상 범위 확대, '노동 도시'를 위한 원·하청 이익 공유 법제화,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등 지역과 나라가 국면한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광산갑은 송정1·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운남동, 동곡동, 월곡1·2동, 삼도동, 분량동, 평동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민주, 2인 경선서 민형배·김성진·정재혁 3인 경선으로

#### 광주 광산을

광주 광산은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에 맞서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사실상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경선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안태욱 광산을 당협위원장과 녹색정의당 김용재 전 중소상공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위원장, 진보당 전주연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처장도 출사표를 내고 본선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서는 민 의원, 김성진 전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3인 경선으로 맞붙는다.

민 의원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국정홍보, 인사관리행정관, 사회조정비서관, 민선 5·6기 광산구청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수석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실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역임하면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에 맞서는 김성진 전 원장은 대표적인 '경제

#### 국힘 안태욱·녹색정의당 김용재·진보당 전주연 출사표

통'으로 불린다.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김 전 원장은 전남지방우정청장,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중앙부처에서 가꿔온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 경제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발표된 민주당 경선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됐지만 상경·색발 투쟁 끝에 재심이 인용되면서 경선 후보로 살아남았다.

정재혁 전 선임행정관은 인성고, 목포대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선임 행정관 등을 지냈다. 국정 전반을 거친 풍부한 정치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50개월 넘게 근무하다 2021년 9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 인사로 들어갔다. 지난해 10월 광주혁신경제포럼 산하 광주혁신경제연구자

으로 취임해 광산읍과 정치 현안을 연구하고 지역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면서 밑바닥을 다지고 있다.

현역의원에 맞서 예비후보들 간 단일화 논의가 있었던 만큼 경선 과정에서 이들의 단일화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안태욱 광산구를 당협위원장이 단수 공천을 받으며 출마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는 1987년 신민주공화당 광주·전남 간사,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광주·전남 조직부장, 새누리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TBN광주교통방송 사장,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두루 지냈다. 현재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 이사, 호남의길 시민연대 공동 대표 등을 맡고 있는 안 위원장은 '보수' 후보로서 광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김용재 전 중소상공인살리기 광주



민형배(민)



김성진(민)



정재혁(민)



안태욱(국)



김용재(녹)



전주연(진)

네트워크 위원장이 출마한다. 21대 정의당 광산구를 후보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김 전 위원장은 '지

방대학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교육 등 지역민의 관심을 끌어들이며 소통하고 있다.

진보당은 전주연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처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전 사무처장은 6대 광주시의회 당시 최연소 시의원으로서 골목상권 보호법,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 등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산은 첨단1·2동,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 수원동, 하남동, 임곡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7시
- 장 소: 심미문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문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문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 펜션 급매매

###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실11개, 히노끼 욕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可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